

녹색당 선거활동 기록의 의미 분석 연구

Content and Value Analysis of the Records of Green Party Korea's Election Activities

주현미(Ju, Hyun Mi)* · 임진희(Yim, Jin Hee)**

1. 서론
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징
 - 1) 한국 정치와 정당의 역할
 - 2) 민주주의 제도로서 선거의 의미
 - 3)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3.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 수집 현황
 - 1) 일상아카이브에서 선거기록의 위치와 수집 기획 의도
 - 2) 2014 지방선거 컬렉션
 - 3) 2016 총선 컬렉션
4. 녹색당 선거기록을 통해 보는 민주주의의 가치
 - 1) 풀뿌리·직접·참여민주주의 실험을 담은 기록
 - 2)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녹색당의 선거활동을 담은 기록
 - 3)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
5. 결론

* 제1저자.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간과기억아카이브(hmarchives.org) 아키비스트.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
■ 투고일 : 2016년 6월 20일 ■ 최초심사일 : 2016년 6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초록〉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 녹색당, 민주주의, 선거기록, 일상아카이브, 정당기록

〈Abstract〉

An election is a major event in a country that elects the people's representatives. Currently, Korea's electoral system has a structure that limits the exclusion of the minority's opinion. Also, it has strengthened the monopoly of major political parties. Despite the harsh conditions, Green Party Korea has proposed an alternative to prevent even the minority from being excluded by practicing direct democracy and

expand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 within the party. Election campaigns should thus reflect this orientation of Green Party Korea. The local elections and the national elections reflect Korea's political and social status and show the course over two minority parties beyond such limits. Moreover, they provide evidence of the activities of Green Party Korea. The paper analyzes how the election archives of the party hold the values of democracy, how minor parties jump to another because of the unfavorable election system, and how the archives of Green Party Korea reflect its values on the political history of Korea.

Keywords : Green Party Korea, Democracy, Election Campaign Records, Archives of Everyday Life, Party Records

1. 서론

지난 4월 13일 총선이 치러진 다음 날, 각종 언론은 민주주의의 쾌거, 유권자의 승리 등의 기사들을 쏟아내었다. 확실히 승리가 점쳐지던 집권여당이 제 1당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이 돌풍을 일으켜 국회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선거 2개월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공천 배제-탈당-무소속으로 출마-복당'으로 집권여당은 다시 제 1당의 지위를 되찾았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공천 비리 문제로 시끄럽다. 정말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힘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인가? 선거 때마다 늘 1,2번을 나눠가지는 거대 정당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제대로 추천하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게 되는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믿어달라고 무릎 꿇고 절까지 하지만 국회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정당의 모습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정치인을 총원하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며 국민들의 뜻을 정책으로써 통합해야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당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원인을 거대 정당에만 유리하고 그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에 있음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러한 불리한 선거제도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녹색당이라는 소수정당의 선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녹색당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현대 정당들 중에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지향하는 바가 뚜렷한 정당이라는 점과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까지 세 번의 공직자선거를 치르면서 녹색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선거를 세 번째 치르는 국내 유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부 분열로 인해 당 조직이 크게 변화된 일이 없었다는 것, 선거에서의 지향이 동일하다는 것 등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녹색당에서 공직선거운동을 경험했던 활동가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아무리 기록을 통한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고 기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록을 타 단체와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속한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운영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시작단계부터 후보 및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하고 기록의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기록화를 지원하였다. 선거 후 아카이브에서 해당 기록들을 입수해 선거를 보여주는 분류체계를

적용해 온라인기록관에 등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기록의 기록화 기획부터 수집 후 각각의 컬렉션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녹색당의 선거기록이 현대 정치사회의 어떠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내용과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아카이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대의 모든 기록이 증거의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통적인 기록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윤은하, 김유승 2016).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가 어떻게 거대 정당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선거제도가 어떻게 이를 공고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선거를 통해 이를 돌파해가며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을 선거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당의 선거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만의 고유한 선거운동 방식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과 정치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의 정치, 사회, 문화사적 의미와 기록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특징

1) 한국 정치와 정당의 역할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직접적인 통치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체제이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정당과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본질

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정치기구다. 현대정치에서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행위는 정당과 정당체계라는 매개를 통해서 행해지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고화는 정당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정당정치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박명호 2004, 405). 정당은 정부와 사회, 즉 국민들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채널로써 정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정치체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선거 등을 통해 정당의 지향점과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의정활동이나 국정감사 등의 정치적 통제 활동 등을 통해 실현시키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주현미 2013, 10).

정치적 충원과 참여는 정당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이다. 정당의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된 사람은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당선될 경우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 이에 따라 정당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후보를 공천해야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한다. 그렇다면 현실정치는 어떠할까? 민주사회를 위해서 특히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 과정 중 보좌진들과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출처 불명의 문서 사진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중앙선관위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는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프레시안 2016.3.4. 기사 참조). 또 공천탈락과 탈당, 무소속 출마 후 당선, 그리고 복당은 2016년 총선 과정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향식 공천제로 인해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치인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녹색당의 경우 상향식공천제를 지향하며 지역구 후보는 해당 지역당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였다. 이 경선의 후보가 되는 것도 일정수의 당원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들은 당내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 녹색당의 후보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들을 회의록, 사진, 영상 등의 기록으로 남겨 당내·외에 후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정당은 이처럼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정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일상 정치활동에서 자신들의 뜻을 유권자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즉 정당이 민주사회에서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유권자들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극적으로는 정책과 지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대중강연을 열어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지향에 부합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정당에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정당들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당에는 국고 보조금도 없을 뿐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도 없다. 유권자들이 민주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을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정당에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사회를 통합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시민사회 내의 요구와 갈등을 현재화함으로써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기구들이 존재함으로써 갈등이 집약되고 대표되어 더 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정당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당의 역할과 활동이 왜곡되고 뒤틀려진 부분이 있다. 정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을 인지하고 책임정치로 나아가야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이런 왜곡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소수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거대정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당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

2) 민주주의 제도로써 선거의 의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는 시민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이자,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민주적 절차이다. 선거에서 위임받은 시민 주권의 크기에 비례해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주주의다(박상훈 2015, 9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과 선거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시민이 선거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고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집권해 정부를 운영하므로, 정당은 선거과정을 통해 주권을 위임받으며 그로 인해 정부의 정통성이 확보된다(장훈 2004, 171). 또한 정당의 기능 중 정치적 총원 기능은 선거와 연결되는 것으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엘리트를 발굴해 정치체제에 공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유형은 대표 방식(또는 당선결정 방식)과 선거구의 크기, 투표 방식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나누어진다. 첫 번째 요소인 대표 방식

에 따라서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최다득표를 한 1인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방식이고 소수대표자는 1위 득표자 외에 2위 이하의 후보들도 당선 범위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두 번째 요소인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 두 명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 선거구당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 정당별 의석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¹⁾ 단순다수제는 과반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 제도로, 반대의 개념은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하는 절대 다수대표제이다. 절대 다수대표제의 경우에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와 선거권자가 각 후보자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는 선호투표제(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위키백과). 비례대표제는 투표에서 획득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작성하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앞 순위부터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총선과 같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지역구 의원수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국회의원 정수의 15.6%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크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로 나뉜다. 대통령선거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5년에 한번 치러지고 선거운동기간은 23일이다. 국회

1) 국회의원 총선거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이지만, 지방선거 특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 치러지며 지역구위원의 경우 선거구 단위로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의원은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을 혼합선거제라 한다. 녹색당은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의 후보를 냈으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4년에 한번 치러진다. 광역단위의 시·도위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1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선거제이고 구·시·군의회의원은 1구당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선거제이다. 지방선거의 비례대표는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은 12명의 광역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11명의 지역구 후보, 1명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었으나 전부 낙선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양당제를 유도함으로써 정국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승자독식의 원칙을 정당화하고 유권자 투표와 의석수간의 비례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표출되었다. 또한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사표가 되는 전형적인 문제점도 발생되었다. 더욱이 지역주의를 고착시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안승국 2010, 260).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편부터 민주주의제도의 변화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가 많은 사

표를 발생시키고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확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국회의원정수의 15.6%²⁾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 50%, 일본 37.5%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다(김욱 2006, 57). 소수정당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선거제도가 개선되면 이는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 활동으로 인해 한국 정당정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의 정치·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당과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당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며 현 선거제도에서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소수정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의 지향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은 우리나라 정치체제와 선거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총 세 번의 공직선거를 치렀고 당 내부적으로도 100% 추천제 대의원 선출, 여·남동수대표제 등 다른 정당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정당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을 통해 정책공약 수립, 후보 선출 등의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통해 현대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당법의 한계로 오롯이 당비로만 운영되고 선거 역시 당비만으로 치러야 하는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소수정당의 선거기록을 통해 동시대 거리, 온라인 캠페인 문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녹색당은 당원 평균연령 40세, 절반이 넘는 높은 여성 당원 비율,

2) 2016년 2월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 253개로 늘어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19대 총선 대비 2.4%, 7명이 줄었다.

청소년 당원 조직 등 다른 정당과는 다른 계층 구성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통해 당대 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선거는 대표를 선출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하지만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낮은 비례대표 비율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 투표와 의석수간의 비례성이 낮아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거대 정당에만 유리하여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은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무리 소수의 국민이어도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는 개편되어야 한다. 소수정당인 녹색당의 선거활동은 현재 한국 정치의 불합리한 면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의 선거기록은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선거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선거제도의 개편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직접민주주, 참여민주주의 정치 방식의 도입이다. 직접민주주의는 협의의 개념으로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과정참여를 포괄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유진숙 2008, 2). 모든 정치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비용, 절차 등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려된다. 꼭 선거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역시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추첨제의 한 방식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

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대법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배심원 판결과 판사 판결이 91% 정도 일치하며 2심 파기율을 보면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보다 1심에서 판사가 내린 재판이 더 높다고 한다(프레시안 2016.02.17. “국회의원, 선거 대신 제비뽑기로 정하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엘리트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상식과 정의만으로도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한 2005년 부안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한 사례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빚었던 방폐장 정책은 2005년 11월 주민투표 결정으로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주성수 2009, 163).

직접민주주의의 추천 방식을 정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하는 아테네는 시민들의 대표인 민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민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평의회와 행정을 담당하는 이른바 공무원은 제비뽑기로 추천했다(정주환 2016, 171).

추천제를 바로 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모든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절차와 비용의 문제 등의 단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추천제 역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을 뽑는 경우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후보군의 자격을 일정 정도로 높이고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추천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정당 내부에서부터 시도하는 정당이 있다. 녹색당은 당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나 당내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을 전면 추천제로 뽑고 있다. 이러한 녹색당의 시도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다른 정당의 운영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녹색당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확산의 역사적 기점이라

고 할 수 있는 서구 68운동을 기점으로 탄생하였으며 90년대에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는 집권연정에 진입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유진숙 2008, 11). 독일녹색당이 직접민주주의 확산의 물결 속에 태어났으나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정당으로의 이행을 선택한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녹색당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이를 극복하며 대안적인 정치체제를 제안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당은 2012년 3월 4일 창당하였다. 같은 해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를 내고 활동하였고 정당투표 0.48%를 얻었다. 당시 정당 투표율 2%미만의 정당은 등록 취소되어 4년 간 동일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³⁾에 따라 해산되었다. 총선 직후 재창당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정당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다. 2012년 10월 충남 홍성에서 재창당 대회를 갖고 당원투표를 거쳐 '녹색당 더하기'라는 당명이 채택되었다. 정당법상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2월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되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명을 찾은 후 현재까지 당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당 역사상 같은 이름을 가장 오래 사용한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녹색당의 강령을 통해 이들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당의 강령은 당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령초안위원을 모집하여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초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통과되었고, 4.11 총선 이후 토론과 보완 작업을 거쳐 2012년 10월 13일 재창당대회에서 현재의 강령으로 확정되었다.

3) 해당 조항인 정당법 제41조4항, 제44조1항3호가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무효화되어 2014년 2월 19일에 중앙선관위의 승인으로 원래 당명 '녹색당'을 되찾았다.

녹색당 강령의 특징은 지구녹색당 헌장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한국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데에 있다. ‘전문’,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구도완 외 2013, 156).

또한 강령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를 당헌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부터 담아내고자 했으며 강령과 마찬가지로 당헌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들이 직접 당헌을 만들었고 당헌을 통해 지역분권,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직접·참여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당 내부 조직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당들은 중앙당에 권력이 집중되거나 원내대표단에 의해 좌우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당내 파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 역시 중앙집권적, 하향식의 진행되어, 후보의 공천 과정, 정책 공약의 수립 역시 당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중앙당 또는 선거본부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중앙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역녹색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녹색당 대구시당’ 같은 표현이 아닌 ‘대구녹색당’, 시·군·구 단위에서도 ‘마포녹색당’, ‘홍성녹색당’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하승수 2013, 153).

또 직접·참여민주주의 지향에 따라 당내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을 100% 추첨제와 소수자할당으로 선정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조차 당권파, 비당권파를 나누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는 등 당의 분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폐해가 있는 만큼, 추첨제는 당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 대의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녹색당 당헌 제 10조 제3항).

이외에도 녹색당은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가 되도록 하고 있고 여·남동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녹색당 당헌 제 6조 제1항). 이러한 원칙은 총선 비례대표에도 적용(녹색당 당규 제 35조 및 녹색당 제 36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록)되어 2012년 총선의 경우 3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1, 3번 2명이 여성이었고 2014년 총선의 경우 5명의 비례대표 후보 중 1, 3, 5번 3명이 여성후보였다.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여성부(UN Women)의 ‘2014 여성 정치인 지도(Women in Politics Map 2014)’ 결과에서 세계 113위에 링크될 정도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지도록 정당운영의 원칙을 수립하고 실행해가고 있다.

3.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 수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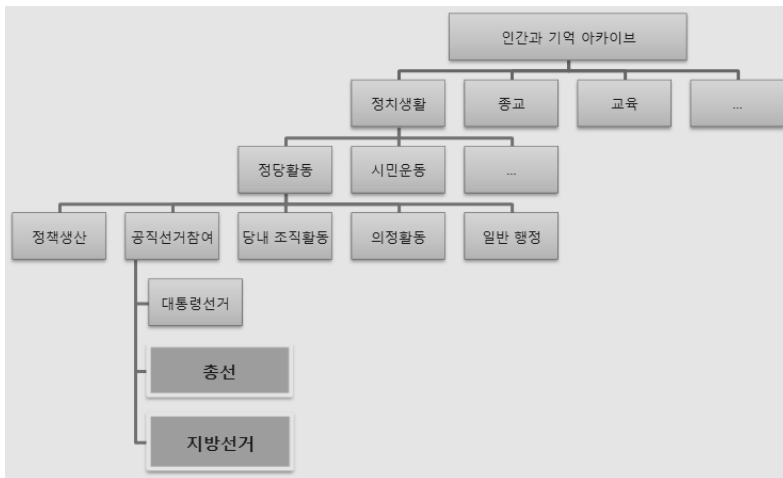
1) 일상아카이브에서 선거기록의 위치와 수집 기획 의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4월 11일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와 최근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세 번의 공직자선거에 참여하였다. 이 중 2012년 선거 기록은 선거 이후에 백서 출간을 목표로 전국사무처를 중심으로 선거기록을 모아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며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활동 중 일부 후보의 활동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의 주체인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일상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 서비스하는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영역을 범주에 따라 나누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집하여 디지털아카이브에 축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기록은 국가의 통

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행위 영역으로 ‘정치’ 영역에 해당한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정부가 통치하는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적응해 가는지에 관한 것이다. 녹색당은 수많은 정당 중에 하나이지만 ‘정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바꿔가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써 여기에 속한 개인 또는 모임이 어떻게 자기 삶의 문제를 정치화하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치세력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정당이었다. 여기에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인 본 연구자가 전국사무처의 활동가로써 창당 이전인 창당준비위원회 시기부터 창당, 2012년 총선, 정당 등록 취소, 재창당의 과정을 함께 했고, 현재도 당원으로써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녹색당의 지향과 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1〉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서 선거 컬렉션의 위치



앞의 그림은 2014년 지방선거 컬렉션 기획 당시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지향하는 일상아카이브지도에서 선거기록의 위치를 그려본 것이다. 인간 생활의 대범주를 정치, 종교, 교육 등의 활동으로 잡고 하위에는 이 활동의 종류를 구성하였다.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에 대해 정당활동, 시민운동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하위에는 정당의 기능을 배치하였다. 그 중 공직선거참여 하위에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의 종류를 나열하였다. 위 표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현재도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연구 중인 부분이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매년 초 그 해에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를 고려하여 수집 계획을 세우고 기획-실행-평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2014년과 2016년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로써 각각의 선거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하는지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 활동과정에서 녹색당이 지향하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정당과 차별화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를 포착하고자 했다. 후보 선출 과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녹색당을 홍보하는 방식이 어떤지 각각의 역할을 운동원들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분류체계와 기록물 기술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후보 선출 과정 기록의 경우, 그 수행 주체가 후보 자신이 아닌 녹색당의 전국운영위와 전국사무처이기 때문에 후보 선거본부 중심으로 수집한 컬렉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녹색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차후에 직접 수집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컬렉션과 연결할 예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 컬렉션은 녹색당 후보 중 서울 은평구 구의원후보로 출마한 박종원 후보의 선거활동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당 활동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범주화한 일상 분류 체계에서

정부의 통치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선거는 정당의 주요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공직선거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지역 정치인을 뽑는 선거만큼 선거를 통해 지역 및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며 공약 수립을 통한 지역 정책 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정당의 큰 이벤트이다. 총선에 비해 실제 생활영역에 대한 밀착도가 높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분권과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녹색당 역시 지방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유권자를 가까이서 만나고 정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녹색당 지방선거기록을 통해 2014년 현재의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방식을 살펴볼 수 있고 소수정당이 선거를 계기로 주민들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은평구의원 선거의 주체인 은평녹색당은 녹색당 서울시당 은평구 당원협의회가 공식 명칭이다. 지역분권을 추구하는 녹색당은 지역모임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녹색당이라는 조직명을 사용하고 있다. 은평녹색당은 지역에서의 에너지운동, 생협 운동, 풀뿌리지역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으로써 정당의 기초조직이면서 지역 정치활동의 거점이기도 하다. 그 구성원들은 정당의 당원이면서 에너지운동 활동가, 생협 운동 활동가, 주민운동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선거기록의 각 행위자들의 활동은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의 접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지역정치의 행위자라는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어 가는 활동을 보여준다.

2016년 총선의 경우 녹색당 전체의 활동을 아카이빙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서울 이외의 지역구 후보들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인력과 시간의 부족 문제가 있어 서울 지역구의 후보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카이빙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총선에서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 5명(서울 종로, 동작갑, 서대

문갑, 경기 의왕·과천, 대구 달서갑)과 5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했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이 중 서울 종로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인 하승수 후보, 동작갑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인 이유진 후보의 선거기록과 정당연설회로 대표되는 전국구 당원 선거운동인 정당연설회 기록을 수집하였다. 총선은 녹색당이 치르는 3번째 선거이고, 창당하자마자 치른 2012년 총선에 비해 조직적으로 안정되고 더욱 체계를 갖추어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였다. 지역구 후보가 없는 인근 선거구에 속한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후보, 선거운동원, 해당 지역모임 당원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기록을 생산하였고, 지역구를 넘나드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기록의 생산 장소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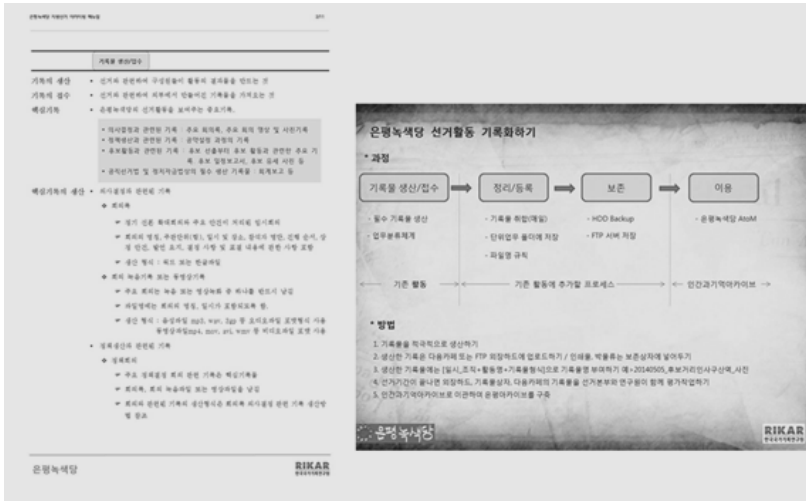
2) 2014 지방선거 컬렉션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컬렉션은 사후 수집이 아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선거본부가 합의를 통해 공동 기획한 기획 수집의 첫 번째 사례로써 그 의미가 크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인 본 연구자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3월 24일부터 아카이빙 기획을 통해 선거활동 기록화의 목적을 명시하고 기존 지방선거 활동과 은평녹색당의 일상 활동을 분석하여 선거본부의 활동에서 예상되는 기록을 나열한 후 당시 예비후보였던 박종원 후보 및 당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합의를 하였다. 또 4월 3일 선거본부의 회의에 참여하여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규칙 등을 설명하였다. 녹색당은 구성원의 합의 과정과 동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본 회의를 통한 아카이빙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선거 활동의 주체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휘발될 수 있는 기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록 생산 및 취합 매뉴얼을 만들어 선거본부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앞서 후보 및 선거본부 활동가들과의 회의를 도출한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후보 및 선거운동의 활동을 분석하고 기록을 통한 선거 재구성을 위해 필수기록물 지정 및 조직별 활동과 산출물 등의 예시, 기록물 생산 규칙 등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유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매뉴얼의 내용을 전부 숙지해서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 운동원들을 위해 1장으로 압축된 매뉴얼을 추가로 작성해 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온라인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기록물 관리 매뉴얼 기록(좌)과 1장으로 압축한 매뉴얼 (우)



위 그림 중 왼쪽의 그림은 제일 먼저 제시한 은평녹색당 선거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다. 해당 매뉴얼은 선거기록이 무엇인지의 정의와 생산부터 서비스구축까지 각 단계의 실행방법을 상세히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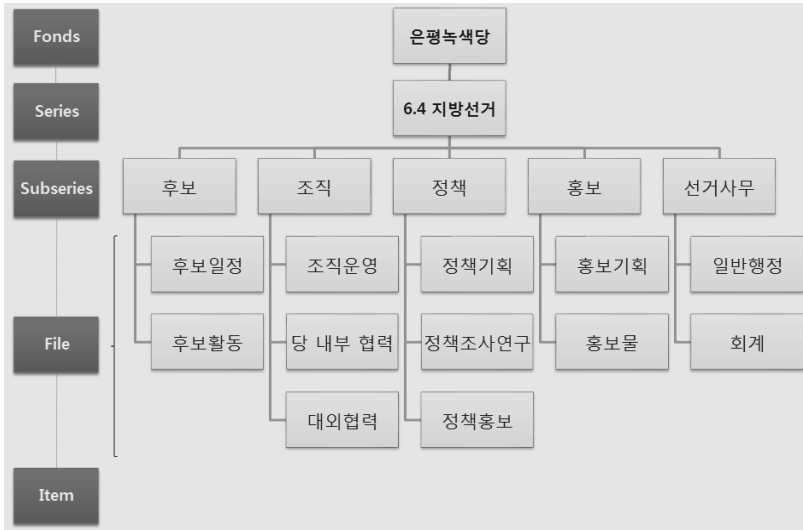
어놓은 것으로 10장이 넘는 분량인데다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어 선거본부 구성원들이 부담을 느꼈다.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수행해야 하는 기록물 생산 및 활동을 단순화시켜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장으로 구성한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두 번째 매뉴얼은 아카이빙 과정과 방법으로 단순화 시켰다.

아키비스트가 선거활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활동 기록화 기획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거활동 중에 기록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선거기록을 통한 선거운동의 재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유세현장의 경우 후보의 연설, 선거운동원의 활동, 주민들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상기록화가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선거운동 중 마지막 주말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 기록화를 지원하여 선거운동원 인터뷰, 지역주민 인터뷰, 선거운동 막바지의 모습 등 은평녹색당 지방선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거운동 기록을 생산하도록 했고 선거 후 문서류 34건, 박물관류 26건의 실물기록 60건과 전자문서, 사진, 영상기록 등 832건의 디지털 기록 및 다음카페, 밴드 등 온라인에서의 선본 구성원들의 소통 기록을 인간과기억아카이브로 입수하였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녹색당을 최상위 컬렉션으로 구성하고 은평녹색당은 풍으로 구성하였다. 녹색당의 다른 단위 주체들의 활동을 입수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고 은평녹색당의 선거기록 뿐 아니라 지역정당으로서 일상의 정치활동의 기록을 담을 수 있도록 은평녹색당 풍의 하위에 지방선거 시리즈 하위에 지방선거 선거본부의 각 조직(기능)을 서브시리즈로 설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된 정당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정의된 정당의 기능분류를 고려한 것이다(주현미 2013, 72-73).

〈그림 3〉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아카이브 분류체계



이러한 분류체계는 선거운동본부의 조직 체계와 하위 활동을 한눈에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정당의 선거운동 조직은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인적 구성이 이루어진다.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매우 까다로워서 선거운동 시기별로 신경써야할 것이 많다. 소수정당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선거기록의 분류는 이를 염두에 두고 선거본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재현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선거운동본부는 조직팀, 정책팀, 홍보팀, 후보수행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이를 서브시리즈에 반영하였다.

후보 서브시리즈는 후보의 일정과 활동을 담아 시기별로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에 대한 문서와 실제 후보 활동을 담은 사진, 영상 기록을 각각의 파일로 구성하였다.

〈그림 4〉 후보 서브시리즈 하위의 기록물 연결해서 보여주기



위 그림은 인간과지역아카이브가 구축하고 있는 오픈소스기록관리 프로그램인 AtoM에 해당 기록물 컬렉션이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관련기술 연결 기능을 이용해 일정표 기록과 활동 기록을 연결해 후보 활동의 맥락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조직 서브시리즈는 선본 회의록, 선거운동원 조직 및 활동 기록 등이 포함된 조직운영 파일과 녹색당 전국운영위, 서울녹색당 운영위 등 당 내부 조직과의 소통 기록이 포함된 내부협력 파일로 구성하였다. 이 파일에 속한 기록물은 후보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 시도당인 서울시당과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의 당내 기구에서 생산하고 후보 선본으로 발송한 문서나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2014년 3월 22일 치러진 녹색당 제 3회 대의원대회에서 은평구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 후보인 박종원 후보를 비롯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녹색당 후보 11명이 '녹색당 지방의원 후보의 약속'을 발표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록을 통해 녹색당이 의정활동의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원본 문서가 아니고 출력한 기록을 사진으로 재촬영한 것인데 사진기록의 품질이 좋지 않지만 원본 기록을 입수할 수 없어서 선별 당시 폐기하지 않고 아카이브에 등록하였다. 차후에라도 실물 기록을 입수해 해당 기록물과 연결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여러 조직과 연대한 기록과 은평구 선관위 등에서 접수한 기록이 포함된 대외협력 파일로 구성하였다. 당시 불거졌던 제 6대 은평구의회외의 공무국외여행 문제에 대해 진보신당과 함께 연대해 조사, 연구, 주민감사 청구 운동 등의 활동을 펼친 기록은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정당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구성원을 자당의 인물로 두고 있는 거대정당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대외협력 파일에는 이 건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서, 해외시찰보고서 짜깁기 규탄 기자회견의 보도자료, 사진 기록 등을 포함한다.

정책 서브시리즈는 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 기록으로 정책 기획, 정책조사연구, 정책홍보파일로 구성하였다. 녹색당 지방선거의 경우 당 전체 차원의 기본 정책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지역구 후보별로 해당 지역의 정책 이슈에 맞게 정책 공약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정책 전달 방식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법을 정책 활동을 통해 공약화하는 것이 녹색당이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의 방식이며 정책 수립 과정을 담은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5일 생산된 지방선거정책논의 회의기록과 4월 2일 생산된 정책 및 공약 수립을 위한 제안서, 4월 24일 생산된 선본회의 결과 기록, 5월 10일 생산된 정책발표회 기록까지 구성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회의하고, 이를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정치, 생활정치를 실현한다. 녹색당의 지방선거 정책 수립 과정 기록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정당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

활정치 실현의 과정을 이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선거운동 초반 지방선거정책논의 기록

지방선거 정책 논의_3월 5일(화요일)

* 핵심정책과 주요공약의 일반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녹색당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
 - 거대 당론과 이상의 표현보다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기대할 수 있는 메시지
 - 내가 내는 시골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 녹색정치는 풀뿌리 지역정치라는 점이 신명하게 드러나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녹색 교육, 녹색 먹거리, 녹색 일자리 등을 살펴보자.

* 어떤 정책을 핵심에 놓을 것인가?
 1. 보육 및 교육-행복한 아이들의 마을
 - 주택임집, 학교임집 지역이라는 지역구 특성상 보육/교육 정책 없이는 표심 공약 불가
 - 지역구 원외 의원이 모두 영유아 보육과 초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세울 것 예상 가능
 - 남기정(새누리당)의 경우는 부인이 어린이집 원장, 장우윤(민주당)의 경우는 얼마
 * 교육/보육을 첫 번째 핵심 정책으로 놓고 정면 승부를 할 수 밖에 없다.
 * 녹색의 가치를 담아 영유아, 초등, 중고등 교육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생산한다.
 (정책 예시)

영유아	초등	중고등
광주형 안전급식 실시	방과후 놀이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영유아 돌봄 프로그램 확대	교육콘텐츠 사업 내실화	청소년 운동 시설 공간 확보
시간제 돌봄방 실시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지원	청소년 센터 설치 확대

2. 에너지-정리로운 에너지 전환 차원 마을
 - 개인의 수준에서 전기를 아껴 쓰게 하자는 부담감 주는 방식의 정책은 지양
 - 일말과 후쿠시마를 이야기하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
 - 복지와 일자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 생산도 필요
 *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참여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예시)

생산	소비	홍보
태양광 발전 지원 조례 제정	교육시설 단열 개선 지원	어린이 생태환경 교육
관공서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	에너지 슈퍼마켓 설치	에너지 교육 사업 지원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지원	마을 에너지 상담소 설치	-마을 에너지 전문가 양성 -마을 에코 투어

3. 풀뿌리 자치
 - 녹색정치는 지역정치라는 메시지 전달 필요
 * 녹색당은 대동명 만들고 국회 제1당 되는 것보다 마을에서 함께 살고 마을을 함께 만드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를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위 그림은 선거운동 초기인 3월 5일에 진행된 지방선거정책의 방향을 수립한 회의기록이다. 핵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녹색당의 가치를 담는 것과 지역의 직접적인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책기획 파일에 속한 기록을 통해 녹색당과 후보의 정책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조사연구 파일은 직접 생산한 기록보다는 수집, 접수한 기록이 많은데 지역구인 구산동, 갈현2동의 지역통계나 은평구청 부서별 위원

회 운영현황, 의정비 추이 등의 자료는 엄밀히 선거본부의 활동에서 직접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조사 활동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고 다음 선거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록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중복된 업무를 피하고 선거 준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록이다.

홍보 서브시리즈는 다른 정당과 다른 차별화된 녹색당의 홍보 방식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녹색당은 선거운동의 재정적 자원을 당원들이 낸 당비에서 충당해야만 하고 그 금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같이 선거차량을 빌리거나 방송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여러 군데 게시하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주요 기조로 하는 녹색당이 화석연료인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선거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했다. 선거차량으로 2인용 자전거를 등록했다. 홍보기획 파일에는 공보물 기획 과정과 선거용 자전거, 후보 명함,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홍보물품에 들어갈 문구들을 함께 선정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고 홍보물 파일에는 해당 홍보물들이 게시되어 있거나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 그림, 영상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선거사무 서브시리즈는 선거와 관련한 행정처리 및 사무관련 기록으로 구성된 선거사무 파일과 기록관리 과정을 담은 기록관리 파일로 나누었다. 선거사무 파일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 선거사무소 집기류 관리 등의 기록이 포함된다. 기록관리에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와 공동으로 진행한 아카이빙 기획 자료와 선거 후 선거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수집된 기록물은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기록관 AtoM에 등록하였다. 입수 후 1차 등록을 마쳤으나 AtoM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록물을 이전하여 재등록 하는 중이다. 사전기획을 했지만 아키비스트가 다 알 수 없는 기록의 맥락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원

후보가 참여해 추가 기술을 예정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녹색당 지방선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록을 선별하여 온라인전시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6〉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전시섹션(좌)과 아이템 기술(우)
(인간과기억 아카이브 2015)



위 그림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온라인전시 프로그램인 Omeka에 구축된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전시 섹션 구성과 각각의 기록물의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전시 섹션은 총 5개로 선거운동의 흐름, 발달한 도구들,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 아카이빙 과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영상, 음성, 사진, 그림 등 기록물의 유형도 다양하게 전시되도록 했으며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 섹션에는 후보의 아버지, 선거운동원 등 구성원들의 구술 인터뷰를 포함했다.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컬렉션은 사후 수집이 아닌 기획수집으로서 기록의 생산 단계부터 아키비스트와 생산주체들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기초단위인

구의원 선거는 다른 정당에서도 기록을 신경 써서 남기기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생산하게 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기초 단위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중앙당 차원에서조차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록물 생산의 자율성, 자발성으로 인해 각각의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이 통일성이 없고 기록물 기술에 필요한 정보가 함께 획득되지 못한 경향을 보였다. 즉 기록물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인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기록의 생산 주체는 선거본부는 일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맥락이 획득되도록 해야 한다.

3) 2016년 총선 컬렉션

녹색당은 2015년 중순 이후부터 국회의원 총선 활동을 염두에 두고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2015년 8월에는 ‘비례대표에 당선되는 후보자는 최초 임기 2년을 마친 후 후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사퇴 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넣었다. 또한 국회의원과 당내 선출직 대표는 겸임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하였다(녹색당 당규 12번). 비례대표를 선출하기에 앞서 녹색당의 지향에 부합하는 비례대표 의원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당규로 정하여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독주를 막고 국회의원과 정당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일찌감치 비례대표 후보 5인을 당원투표로 선출하고 각 후보들이 녹색당과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구 후보들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인간과지역아카이브는 2016년 기록 수집 주제 중 하나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선정하고 총선과 관련하여 정당 및 선거운동본부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 기획을 수립하였다. 특정 후보의 컬렉션 뿐만 아니라 2016년 총선의 사회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의 주요 이슈와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 관련 기사 수집하고 주요 정당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의 메인화면의 변화를 zotero⁴⁾를 이용해 수집하였다. 이는 후보의 선거기록에 대한 맥락 기록으로써 해당 컬렉션에 대한 이해를 돕고 2016년 총선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록들이다. 해당 기록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기록은 녹색당의 총선거기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 수집한 기록이다. 선거운동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요 정당들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의 변화를 통해 정당별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주요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을 선정하여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선페이지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캡처하여 선거 이슈의 큰 흐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량은 적지만 시민아키비스트들이 총선 기간 중 선거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도 맥락기록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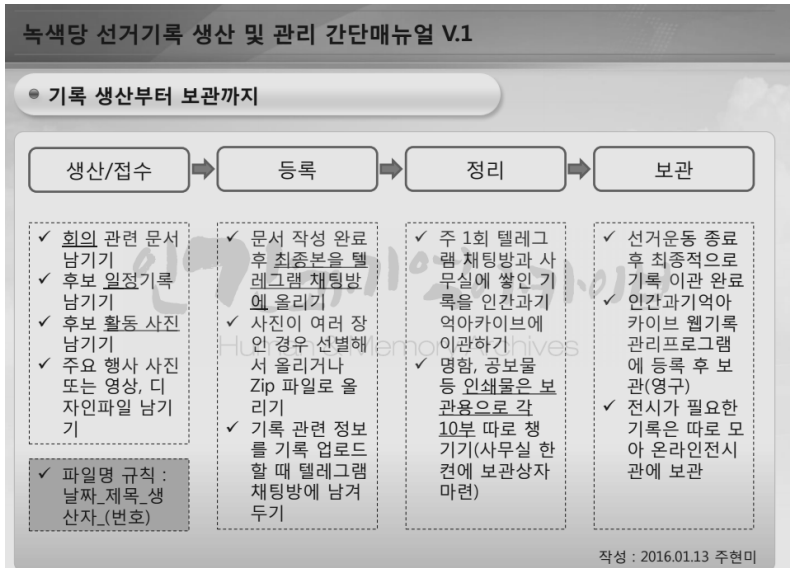
2016년 녹색당 총선 컬렉션은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종로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의 선거기록과 또 한명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유진 동작갑 선거구 국회의원후보의 선거기록, 총선본부 활동기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하승수 선거본부의 기록과 이유진 선거본부의 기록, 총선본부 기록 중 지역조직 활동인 전국 정당연설회 기록이 입수된 상태이다.

하승수 후보 선거본부의 경우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가 (예비)후보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후보 수행원 등 주요 활동가가 참여하는 기획회의(1/12, 1/19, 1/27)에 참여하여 선거기록의 중요성을 설명

4) zotero는 온라인 기반의 수집 관리 툴로 단행본, 논문 등 연구자들을 위한 참고문헌 저장, 관리, 인용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무료프로그램이다. 서적류 외에도 웹페이지, 블로그, 팟캐스트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수집할 수 있고 특히 웹페이지의 메타데이터, 하위 구성 요소를 모두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웹페이지 아카이빙에 zotero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하고 지난 2014년 은평녹색당 박종원 후보의 지방선거운동 기록을 예시로 들어 선거활동에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거본부의 구성원들이 선거기록 아카이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활동 중 적극적으로 기록을 생산하며 기록물 생산 시 명명규칙 (날짜_제목_생산자(연번))을 지키도록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녹색당의 모든 선거본부는 후보나 선거사무장이 단독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기획회의를 통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여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선거운동 과정 중에 신경 써서 기록을 생산하고 취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전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선거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선거본부의 온라인소통 채널(텔레그램)에 아키비스트가 참여하였다.

〈그림 7〉 총선거기록 생산 관리 간단매뉴얼 기록



은평녹색당 지방선거컬렉션 기획 때와 마찬가지로 위 그림과 같이 1장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활동가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생산/접수 시 기록의 최소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파일명 규칙에 생산날짜, 제목, 생산자 등 주요 기술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하승수 선본의 기록은 파일명 규칙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기록물 기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정당연설회 기록은 전국의 당원들이 녹색당을 알리는 연설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한 기록이다. 녹색당 총선본부 조직2팀은 지역조직을 독려하여 각 지역별로 정당연설회를 열어 녹색당의 정책과 지향을 알리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녹색당의 총선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던 2015년 중후반부터 시작되었고 선거법에 의해 본 선거운동기간동안 정당의 집회가 불허됨에 따라 3월 30일에 종료되었다. 녹색당은 이 정당연설회 기록을 전국의 당원들과 공유하길 원했고 이에 인간과지역아카이브는 선거운동 중에 계속해서 이 기록을 전달받아 온라인전시관을 구성하였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사진 기록은 생산자, 장소, 생산일자가 다양하고 사진의 품질 역시 다양했다. 녹색당 조직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정당연설회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정당연설회 서브시리즈 아래에 각 지역별로 파일을 구성해 등록했다. 969개의 기록이 수집되었고 인간과지역아카이브가 지원하여 직접 생산한 영상기록 22건까지 총 991건이다. 이 중 각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록을 선별하여 온라인전시에 적합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인 Omeka의 전시플러그인을 이용해 온라인전시를 구성하였다. 인간과지역아카이브 아키비스트가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시 기록을 선별하였다.

전시기록물의 개수를 고려해 인접한 두세 지역을 묶어 총 10개의 지역 섹션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섹션의 기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붙였다. Omeka 전시 플러그인의 구성 요소 중 텍스트, 사진갤러리, 지도 레이아웃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맨 아래에는 전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로 전체 컬렉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8〉 녹색당 정당연설회 전시 섹션 구성(1)



〈그림 9〉 녹색당 정당연설회 전시 섹션 구성(2)
(<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greenparty>)



위 두 그림은 현재 전시되고 있는 녹색당 정당연설회의 전시화면이다. Omeka는 온라인 전시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시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을 여러 개 제공한다. 기록의 특징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녹색당 정당연설회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지도로 보여주고 전시에 사용되지 않은 기록물을 더 볼 수 있도록 텍스트 레이아웃을 이용해 기록 컬렉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달았다.

AtoM에 등록된 지방선거 컬렉션과 달리 현재 2016 총선 컬렉션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Omeka 프로그램에 등록 중이다. 이유는 AtoM이 사용자에게 너무 어렵고, 기증자가 원하는 온라인전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한다. 해당 컬렉션은 모두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온라인 기록관(<http://hmarchive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승수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의 기록은 1차 선별이 된 상태로 입수되어 등록이 비교적 수월하였고 정당연설회 기록의 경우도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서 전달한 목록표의 형식에 맞게 녹색당의 조직담당자가 엑셀로 정리해서 기록물 원본과 함께 전달해주었기 때문에 등록부터 전시가 수월한 편이었다. 이유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기록의 경우 현재 1차 선별 단계에 있다. 지방선거기록의 경우 AtoM 프로그램에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나 총선 기록은 Omeka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고 있다.

4. 녹색당 선거기록을 통해 보는 민주주의의 가치

1) 풀뿌리·직접·참여민주주의 실험을 담은 기록

3장 1절의 선거기록 수집 기획 부분에서 밝혔듯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녹색당 선거기록을 통해 녹색당의 풀뿌리·직접·참여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며 다른 정당과 다른 차별화된 선거운동의 모습은 어떠한지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녹색당은 후보 선출부터 다른 정당과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공천과 당원 직접투표 방식을 택했다. 후보 선출과 관련한 기록은 직접 수집하지 못했지만, 녹색당은 모든 과정을 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채널을 이용해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풀뿌리·직접·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이를 정당운영의 원리로 삼고 있다. 여·남동수대표제로 공동운영위원장, 정책운영위원장은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당내 최고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을 100% 추천제와 소수자할당으로 뽑고 있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는 영상기록으로 만들어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공개하고 있다. 대의원의 추천은 지역별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진행했다. 당원들이 모여 직접 제비뽑기를 하는가 하면 휴대폰 룰렛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기도 했다. 옷놀이로 정한 지역도 있었다. 당원 누구나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누가 되어도 기쁘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는 참여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당원들의 민주주의적인 성숙도와 참여도를 반영한다. 또한 이를 당원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추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전권을 휘두르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공천파동과 비례대표 공천 비리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정당들과 달리⁵⁾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하였다. 후보 출마도 당원의 2%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5) 총선이 두 달 지난 6월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이 큰 이슈이다. 비례대표 공천에 참여했던 인사조차 공천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비례대표 공천에서의 부실심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송경화 2016).

했다. 후보 추천 과정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 진행되었고, 후보등록 현황도 전부 공개되었다. 경선은 온라인으로 치러졌고 당원의 50% 이상이 참여해야만 유효하도록 했다.

〈그림 10〉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공지 화면



위와 같이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공지하고 선출할 후보자 수, 추천방법, 선출방법, 선거인명부 등의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녹색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렇듯 당원 누구나 비례대표 후보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과 당원투표로 후보가 결정되는 점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녹색당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녹색당 비례대표 경선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권자(최근 3개월 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 및 후원당원) 2% 이상의 추천이 필요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출마의 변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당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그림 11〉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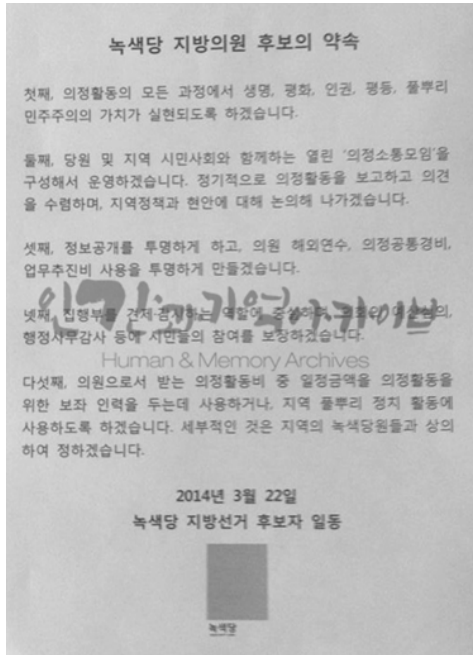


위 그림은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2016 총선에 녹색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한 이계삼 후보의 추천 과정이다. 이렇게 녹색당은 비례대표를 경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다른 정당들처럼 하향식 공천으로 당 지도부에 전권이 있는 것과 달리 녹색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당의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선거 운동 전략과 방법 등이 의결되고 후보들은 대의원대회

에서 후보로서의 선언을 한다. 이 부분은 거대 정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며 다른 정당도 마땅히 참고해야할 부분이다.

〈그림 12〉 녹색당 제2차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 〈녹색당 지방의원 후보의 약속〉 문건



앞의 그림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운동에 앞서 대의원대회에서 후보를 승인하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의정활동 중 녹색당의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한 문건을 사진기록으로 생산한 것이다. 후보들은 정당인으로서 책임정치를 실천하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당원들은 후보자를 지지하며 함께 선거 운동을 해나간다. 2016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별로 녹색당의

약속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의 과정을 거쳤다.

이런 방식이 모든 정당에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다. 정당이 커질수록 전당원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더디 가더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원 기초조직으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다져가는 것이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한 정당의 역할일 것이다.

또 녹색당의 선거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 참여를 큰 특징으로 한다. 2016년 총선 때에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으로써 선거 기간이야말로 녹색당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이므로 정당연설회의 형식으로 지역별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당연설회는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미디어 노출이 적은 녹색당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채택한 선거캠페인 방식이다. 전국의 지역 조직이 당원들을 조직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거점 지역 등에서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녹색당 주요 정책에 대해 연설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주요 공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피켓에 적어 연설회 시간 동안 피켓을 시민들에게 노출하였다. 전국단위의 이 정당연설회의 기록은 총선본부의 조직2팀을 중심으로 각 지역 정당연설회를 지원하고 각 정당연설회 때마다 주요 장면을 찍어 총선 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산과 취합이 이루어졌다. 지역별 선거기록을 보면 지역의 특색을 살펴볼 수가 있다. 전남 보성, 경북 양양 등 지역의 소도시, 군단위의 지역모임에서는 5일장,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패션의 거리 등에서 진행했다. 등산로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한 지역도 있다. 직접 쓴 손피켓을 들기도 하고 색소폰과 기타 등을 이용해 거리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림 13〉 전남지역 정당연설회에 사용된 손글씨 피켓(좌)과 반려동물과 함께 정당연설회에 참여한 당원(우)



〈그림 14〉 제주녹색당의 정당연설회 기록



위 두 기록에 보듯이 동물권 정책을 주요 정책을 하는 녹색당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도 있었다. 지역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역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이나 연설을 준비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2) 선거제도를 뛰어넘는 녹색당의 선거활동을 담은 기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법과 선거제도는 소수 정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100% 당원의 당비만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 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가 결합된 혼합선거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녹색당과 같이 지역 기반이 없는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득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당비만으로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광고나 언론을 통한 전국적인 홍보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듯 녹색당의 선거운동은 후보를 알리고 정당을 알려야 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은 선거기록은 오늘날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선거법은 공평한가? 이들은 왜 천막 선거사무소를 차려야만 했는가? 왜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록들이다. 즉 정치와 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다. 이런 기록이 없다면 2016년 총선이라는 역사기록에는 ‘국민의당’의 선전과 여소야대 정국을 이룬 것 등 거대정당의 이야기만 남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두가 놀란 것처럼 예상치 못한 선거결과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속에서도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선거를 치러낸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선거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들의 활동도 전체 선거에 대한 평가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당 총선거록을 살펴보면 하승수, 이유진 후보 모두 자신들이 출마한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승수 후보가 나선 종로 선거구는 여야가 모두 중요한 선거구로 인식하고 있는 선거구이다. 후보만 해도 10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하승수 후보는 지역구 후보로써 당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녹색당을 알려 정당투표의 득표수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5〉 수유역 인근에서 연설 중인 하승수 후보



동작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유진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역구 후보가 있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에서의 제한 때문이다. 공직자선거법 제 141조에 의거 본 선거운동기간인 3월 31일부터 4월 12일 동안에는 정당이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당을 알릴 수밖에 없다. 하승수 후보의 선거운동은 선거구에서 개인의 표를 얻는 것보다 녹색당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6〉 하승수 후보와 함께 일산 대화역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인 당원들



〈그림 17〉 서울역 앞에서 정당연설회 중인 이유진 후보와 당원들



앞의 세 사진기록은 지역구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을 펼치는 두 후보와 이들과 함께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당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선거사무소에 등록된 선거용 차량의 경우도 이동 가능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당의 하승수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꼼꼼히 살펴 이 ‘틈새’를 찾아냈고, 지역구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가 없는 다른 지역에 녹색당을 알려 정당 투표에서 녹색당의 득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듯 녹색당의 선거운동은 소수정당에 제약이 많은 선거운동을 돌파해가는 과정이며 이를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선거운동 때가 되면 유동인구가 많고 현수막을 걸었을 때 잘 보이는 건물을 선거사무소로 임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사무소의 외벽에는 건물 전면을 덮을 만큼 큰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거사무소들은 대개 임대료가 비싸다. 선거자금을 당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녹색당과 같은 정당은 선거사무소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승수 후보가 출마한 종로구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하승수 후보는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 사무소를 열었다.

〈그림 18〉 광화문에 차려진 천막사무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록



위 사진기록은 3월 27일에 진행된 하승수 후보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서 생산된 사진 기록이다. 이 기록은 녹색당과 하승수 후보 선거본부의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수정

당이 제한된 선거법제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가운데에 걸린 현수막 역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것이다. 인강과 기억아카이브에서는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지지발언과 손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드는 모습을 영상기록으로 담았다. 광화문에 차려진 이 천막선거사무소는 임대료가 들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녹색당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군소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이면서 선거운동자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오마이뉴스는 군소정당의 천막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선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선거 사무소 설치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손동호 2016부산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사무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력 정치인들은 수백 평의 선거사무소를 써도 문제가 없지만, 군소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확보부터 애를 먹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은 출마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법을 일정 부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 지적한바 있다(오마이뉴스 2016.03.28. “새누리당이 천막 쳐도 철거할건가요?”). 이렇듯 녹색당의 선거운동은 군소정당에 부당한 선거법을 지적하고 이를 돌파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결국 선거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서는 기득권 정치구조가 깨지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가치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략)” (출처 : 프레시안 2013.5.19. “한국, 10년 내 기운 2도 오르면… 전쟁보다 큰 재앙” 인터뷰 기사 중)

이처럼 녹색당은 창당 때부터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

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선거운동 중에도 이를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인 3월 25일에는 후보들이 모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기록에는 녹색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5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제한 부분이다.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가 몇 명이든 선거사무원이 34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마이크를 쓰는 유세(연설·대담)도 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이것은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통해 정당득표를 얻어야 하는 소수정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기호제도 문제이다. 거대정당들이 1번, 2번을 차지하고, 그 다음을 원내 정당들이 차지하는 기호부여제도는 기득권 정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거대정당들의 번호는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에 녹색당과 같은 원외정당들은 후보등록이 끝나야 번호를 알 수 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예비후보 때부터 명함에 기호를 넣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원외 정당 후보들은 선거를 20일도 남지 않은 때에야 기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 있어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당의 공천절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는 것,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사람, 있어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돈 많이 쓰는 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 기자회견 자료, 인터뷰 기사, 기자회견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통해 녹색당이 선거운동 중에 뛰어넘어야 하는 선거제도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현재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림 19〉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녹색당



이런 선거제도에서의 불리함은 적은 재원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홍보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소개한 정당연설회 역시 적은 재원으로 녹색당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였다. TV나 인터넷 광고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녹색당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법을 택했다. 녹색당 선거기록 중 가장 많은 주제가 정당연설회 기록이었다.

은평녹색당 지방선거에는 대부분 트럭을 개조한 선거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선거차량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선거차량으로 등록된 자전거와 선거운동원의 장면 등을 담은 기록물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녹색당에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차량은 적합하지 않은 선거도구이다. 선거비용을 줄이면서 녹색당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녹색당만의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선거기록이면서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넘어서는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림 20〉 2014 지방선거 컬렉션 기록 중
선거차량으로 사용된 자전거의 모습을 담은 사진기록



이처럼 녹색당의 선거기록은 선거제도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선거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돌아보고 소수정당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

2014년 지방선거 컬렉션과 2016년 총선 컬렉션은 그동안 어떤 아카이브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이다. 또한 어떤 거대정당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것으로 한국정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기록들은 지방선거와 총선의 모든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어쩌면 의회와 국회 진출에 실패한 작은 정당의 일부 기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선거기록을 통해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정당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가 활동가로써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녹색당의 당원이라는 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선거 전략과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정당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 선거기록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녹색당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더 나은 사회로의 지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소수집단의 기억이지만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을 구성하였고 후보와 정당 활동가들을 설득해 기록을 생산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녹색당의 선거활동은 개인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먹을거리 문제,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세력화 하는 과정이면서도 이를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환원하여 삶 속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 즉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중요 이벤트가 만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또 선거기록은 공동의 가치와 지향을 가진 공동체로서 녹색당의 정

체성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와 지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구체화시키는, 즉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를 선출하고 정책을 생산하고 당원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녹색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며 당원들을 결집하였다. 선거는 정치공동체로서 녹색당을 더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선거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기록을 통해 당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를 더 격려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녹색당 선거기록은 정치공동체로서 녹색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의회, 국회 진출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활동이 정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선거활동을 통해 민주사회의 지향을 보여주고, 구호에서 그치는 정책이 아닌 아래로부터 개인의 정치 활동의 결집으로 도출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역사가 지배자 중심의 역사로써 민중을 객체화 시키며 그들의 역사를 배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선자 중심, 집권당 중심의 선거기록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돌파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소수정당과 유권자들의 활동을 배제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기록화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일상아카이브 패러다임 안에서 녹색당 선거기록은 2014년과 2016년 공직자 선거를 읽어내는 하나의 텍스트이면서 아래로부터의 정치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 구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그 다음해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여 녹색당의 지향을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할지 계속해서 기록을 축적해가다보면 녹색당의 지향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작은 움직임에 포착하는 것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역할이며 녹색당과 같은 민주주의의 실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결론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지향을 대변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인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은 현대 정치체제에서 국민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결합하여 정책으로써 표출하고 정치인의 충원과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사람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가며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을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에서 찾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선거제도 개편에서 찾아보았다. 현재의 선거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선거제이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낮아 소수정당이 의회 또는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세워서 정치를 수행하게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제만으로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어려우므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당운영에서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를 도입해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례인

녹색당의 새로운 시도들을 분석해보았다.

녹색당은 대의민주주의제에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령·당헌을 통해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의 지향을 확실히 하고 모든 당의 운영에서 이러한 가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선거에서도 후보의 선출과 정책 수립 등에 있어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하향식 공천으로 해당 지역의 당원 중에서 뽑았고 지역 운영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후보의 모든 활동은 당비에서 충당하였으며 지역 당원들은 선거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녹색당의 선거기록은 녹색당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선거제도의 불리함에 맞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당과 당의 정책을 알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녹색당의 2014 지방선거 기록과 2016 총선 기록은 정당들이 선거에서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보여주는 기록이며 오늘날 선거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들의 선거기록을 통해서 현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고 당대의 선거문화와 현상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 김민정, 김성균, 김은경, 서영표, 송태수, ... 하승수. 2013. 『녹색당과 녹색정치』. 서울: 아르케.
- 김용복. 2009.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기록과전망』, 20, 39-71.
- 김욱. 2006.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3), 53-70.

- 박명호. 2004.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심지연 (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405-426). 서울: 백산서당.
- 박상훈. 2015. 『정당의 발견』. 서울: 후마니타스.
- 송경화. 2016.6.12. 김수민 비례 공천때 '깜깜이 심사' 의혹. 한겨레신문. 검색일자: 2016.6.15.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7831.html
- 안승국. 2010.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1), 259-288.
- 유진숙. 2008. 직접민주주의와 정당.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2565-2583.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2015. 은평녹색당 지방선거 전시섹션. 검색일자: 2016.6.15. http://hmarchives.org/omeka/exhibits/show/exhibit_green_vote
- 장훈. 2004. 정당과 선거. 심지연 (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171-196). 서울: 백산서당.
- 정주환. 2016. 그리스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 아테네 민주주의의 형성과 추천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0(1), 159-182.
- 주성수. 2009. 『직접민주주의 : 폴뿌리로부터의 민주화』. 서울: 아르케.
- 주현미. 2013.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정당 기록관리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